

숲의 숨결

아기 새의 사계절



이정수

이정수

작가 의 말

**한 장면을 구상하는데도 며
칠동안 망설였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즐거웠습
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기쁨
을 누렸습니다.**



아기 새 풀잎이가 태어났어요.



K. P. 10

풀잎이가 처음으로 날갯짓을 해요.



빛깔 부신 봄을 만났어요.



파릇파릇, 숲이 자라요.



호수에도 풀잎이의 친구가 있어요.



소나기는 피해야 하죠.



우와 숲이 물들었어요!



어떡해요?
나뭇잎이 사라지고 있어요.



숲이 텅 빈 것 같아서
풀잎이 마음이 허전해요.



나무가 하얀 옷을 입었고
호수는 유리처럼 얼어붙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요.



숲이 숨 쉬고 있어요!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나 보요.



풀잎이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새로운 봄을 기다려요.



숲의 숨결 : 아기 새의 사계절

발 행 | 2025년 9월 11일

저 자 | 이정수, 휘튼, imageFX

기 획 |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지 도 | 김정훈

본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의
2025년 읽·걷·쓰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도서입니다.

© 숲의 숨결 : 아기 새의 사계절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